

사찰문화재 도난 "무방비"

최근 4년간 89점... 박물관·경보기 태부족 진품 보관 모사품 활용등 보존 대책 강구

송광사 16국사진영 도난사건으로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대부분이 도난 및 훼손 등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문화재의 도난은 관리소홀이 1차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근원적으로는 불교문화재가 정국의 사찰에 분산돼 있고 전문관리자가 없어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91년부터 4년동안 도난된 문화재는 58건 433점으로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46건 89점에 달했다. <대표 참조>

94년 12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된 문화재 6,643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039건에 이른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147건과 768건으로 각각 52%,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찰소장 문화재 가운데 도난 등으로부터 특별히 보호가 요청되는 동산문화재는 303건에 달한다.

일부 사찰소장 문화재는 유물전시관이나 대여금고, 인근의 국공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 위탁보관되고 있으나 불상 불화 등은 예배대상이라는 성격 때문에 해당사찰의 건물 내에 보관되고 있다.

현재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는 사찰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비롯 법주사 표충사 기림사 등 4곳뿐이며, 직지사 송광사 부석사는 건립중이거나 중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인사 육천사는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송광사를 중심으로 고려후기에 활약했던 보조국사 진각국사 청진국사 등 16명의 고승진영으로 지난 90년 9월 보물 제 1043호로 지정돼 송광사 국사



◇도난당한 송광사 16국사 진영중 제3세 청진국사(왼쪽)와 제5세 지진국사의 진영.



정보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현재 강구된 방안은 도난 경보기 설치기 유일하다. 그러나 이번 송광사 사건이나 92년 전남구례 천은사 후불탱화(보물 924호) 도난사건에서 보듯 도난방지시설 설치가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동산문화재는 전국의 16개 사찰에 분산 소 유되고 있으나 그나마 도난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감사 원정사 장곡사 등 13곳에 불과하다. 전문관리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찰 주지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나, 말사의 경우 깊은 산중이어서 인적이 드물고 거주자들이 주지를 포함해 많아야 2,3명에 불과해 수행 포교 외에 문화재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의 한 말사주지스님은 "산문은 항상 열려 있어 도난에 대해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며 "한두분의 스님으로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소장 문화재는 관리소홀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스님이 출타중이거나 심야 또는 신도를 가감해 사찰에 들어와 출처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의 어려움을 빚어내며, 일부 사찰에서는 관리가 어

렵기 때문에 교구본사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것도 극히 일부에 머물고 있다. 불교문화재가 예배물 또는 의식용으로 쓰이므로 모조품으로 대응하려는 것을 꺼려하는 인식 때문이다. 동화사는 조사진영과 탱화등의 진품은 금고에 보관하고 모사품을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일 주문식 문화재부장관이 송광사 문화재 도난사건과 관련 "전국 각사찰이 보유문화재를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권유하고, 사찰이 문화재 보호책임을 맡으면 자금과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 현재는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교구본사에 유물전시관 건립시 예산지원 △예배대상 문화재의 복제품 사용 △국공립·대학박물관 위탁보관 △도난방지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유물전시관 건립지원과 관련해 김진부 문화재관리국장은 "문화재관리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송광사 성보도난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성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진품은 박물관에 보관하고 모사품을 예배용으로 내놓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16국사는 승보의 상징

◇제1세 보조국사 지눌 (1158~1210) 고려중기의 스님으로 정혜결사(定慧結社)운동을 편 이로 고려후기의 선을 크게 부흥시켰다.

(1215~1286) 15세에 출가하여 조계산 진각국사 해심에게 득도하고 운집하는 학승들에게 중흥을 크게 펼쳤다.

◇제2세 진각국사 해심 (1178~1234) 수선사(송광사)를

◇제6세 원각국사 총지 (1226~1292) 1224년(고종 31) 19세에 자원급제하여 벼슬

송광사가 배출한 걸출한 고려후기 고승들

중심으로 저술의 간화선법(看話禪法)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진작시켰다.

◇제12세 혜각국사(?~?) 동국여지승람에 고려 안진이 글을 지어 세운 그의 비가 경북 선산군 미륵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제3세 청진국사 용여 (?~1252) 거란과 몽고의 침략으로 기복불교가 성행해 침체 일로에 있던 불교선종 진작에 크게 공헌했으며 1234년 이후 18년간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7세 지정국사(?~?) 송광사 사원비와 「해동불조 원류」에는 조계6세라 했으나, 제6세 원각국사의 비가 송광사에 현존하고 있어 7세로 추정. 그 밖의 자세한 행적은 없다.

◇제4세 진명국사 혼원 (1101~1271) 지혜가 총명하여 사굴산 선문의 으뜸이 되고, 1259년(고종 46)에는 왕사가 되어 12년간 대종을 교화했다.

◇제8세 자각국사 도영 (?~?) 자각국사 각역의 스승으로 자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5세 자진국사 천영

◇제9세 김당국사 기록이 없다.

◇제10세 해감국사 만항 (1249~1319) 구산(九山)의 선선(禪選)에서 장원으로 뽑힌 다음, 금강산·지리산 등에서 수행하여 명망이 더욱 높아졌고, 송광사 주지로 주석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

◇제11세 지원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제12세 혜각국사(?~?) 동국여지승람에 고려 안진이 글을 지어 세운 그의 비가 경북 선산군 미륵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제13세 각진국사 복구 (1270~1355) 1290년(충렬왕16) 송과의 선선에 급제했으나 명리를 버리고 여행을 나섰다가 백암사에서 10여년의 참구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문하에 선원등 1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제14세 정혜국사(?~?)

◇ 93·94년 비지정정보 도난 현황

명 칭	수 량	소 재 지
운암사 불상(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2점	경북 정촌시 운암사
후불탱화	1점	
능가사 불상(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상)	2점	전남 고흥군 능가사
안정사 후불탱화	1점	경북 통영군 안정사
유급사 후불탱화	1점	경북 영덕군 유급사
신중·칠성·산신·독성·지장·현왕탱화	6점	충남 예산군 수덕사
기장탱화, 후불탱화, 괘불	3점	경북 담양군 유가사
포우대사 영정 후불탱화	1점	경남 진양군 청곡사
선암사 동종(18세기)	1점	전남 승주군 선암사
목조불상	1점	전북 장수군 팔상사
안국사 후불탱화	1점	전북 무주군 안국사
아미타 삼존탱화	1점	경남 양산군 통도사
지장탱화	1점	
대곡사 후불탱화	1점	경북 의성군 대곡사
관음보살상(목불상)	1점	전남 여천군 용문사
월인석보	1점	서울 종로구 세종로 83-1
월인석보 머릿전	1점	
은자능엄경 부모은중경 금자무변경	1점	전남 해남군 대흥사
신홍사 후불탱화	1점	경남 울산군 신홍사
운암사 후불탱화	3점	경북 의성군 운암사
지장탱화·신중탱화		
묘각사 후불탱화	1점	경북 영천군 묘각사
지장보살탱화	1점	강원 삼척군 영은사
삼장탱화·후불탱화	2점	전남 강진군 백련사
신중탱화 후불탱화	2점	경북 문경군 김용사
후불탱화·산신탱화 사천왕탱화	4점	
극락보전 후불탱화	1점	전남 장성군 백양사
목공예품(전개)	2점	
후불탱화·지장탱화	2점	경북 의성군 고운사
계	23건 52점	

* 문화재관리국 94. 10. 5 현재

백암사 사적의 전장경방에 주립 조계14대 화상 복암 정혜라는 기록과 대지국사 고지찬영의 비에 '정혜국사에 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제15세 흥진국사(?~?) 송광사의 사원비와 '불조원류'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행적은 알 수 없다.

◇제16세 고흥국사 법장 (1350~1428) 머리카락이 두치

나 자랐고, 품피리를 잘 붙였으며, 표주박 한개를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다 1395년(조선 태조4)에 자년종 꿈을 주고 송광사의 중창을 결심, 전당 서너개를 지었다. 그후에도 계속 가람의 증축 불사를 들다가 법랍 58년으로 1428년에 입적했다.

이상의 16명중 제1세 보조국사 지눌, 제2세 진각국사 해심, 제14세 정혜국사의 영정을 제외한 13점이 도난을 당했다.

문화계 소식

1천년전 불화 일본서 발견

임란때 약탈... 진품일엔 국내 最古

신라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목불화가 일본 사찰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국어대 김문길교수(일본어과)는 최근 "일본 오카야마현 탄생사(誕生寺)박물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목불화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했다. 김교수는 "이 불화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된 중국 당나라 때의 전설적인 승려 한산과 습득을 그린 가로 90cm 세로 1백 40cm 크기"라며 "일본의 문화재전문가인 오카야마 대학 와타나 히데타로 교수가 지난 56년 작성한 그림 안 때문에 '일람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조선에서 가져온 작품으로, 종이질로 보 전대 1천년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이 진품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화가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最古)의 불화는 고려 고종때 그려진 '오백나한도'로 12세기말 작품이다.



◇ 우리나라 불화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산습득 수목불화'. 일본의 탄생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을 비롯, 문인화가 정성태, 중국의 왕명명, 장스신, 한국의 서양화가 박서보, 윤병석, 심숙자, 김수익, 조각가 전상범, 도예가 홍재표씨의 진사 도자기가 전시된다. (0342-43-1996)

월하스님 친필 병풍등 전시

월하스님 친필 병풍등 전시. 월하스님 친필 병풍등 전시. 월하스님 친필 병풍등 전시.

만해스님 일대기 연극공연

만해 한운(1879~1944)스님의 일대기가 연극으로 공연된다. 3월8일부터 10일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공연된다. 이 연극은 성북구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마

'16나한도' 등 전통불화 발표

김의식씨의 첫번째 불교미술 전시회가 3월1일부터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통해 김씨는 '16나한도'(높이 220cm 길이 10m) 병풍등 4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불화를 사찰에

극단 동쪽나라 연극회원모집

극단 동쪽나라(대표 김형균)에서는 제5기 연극학교 회원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연극학교는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1년반, 2년반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씩 2개반으로 운영되고, 풀이과정, 갖추기과정, 놀이과정, 보이기 과정의 내용으로 1년간 2회 수업한다. (02-263-8438)

웬 소금이 그렇게 비싸?

중 특별한 소금-인산죽염 한봉(250g)값은 45,000원. 보통 소금 값의 무려 1,000배 가량으로, 세상에 이보다 비싼 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소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값을 하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인산죽염은 염분이 몸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180도 바꾼 전혀 새로운 개념의 건강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속의 독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응축시킨 무공해 소금-인산죽염. 이 비싼 소금을 드셔야 하는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하십시오 (736-3171)



150년을 잇는 '신도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고급 관리자 채용

정년퇴임하신 분, 불자되신 분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 모집인원: 남 10명, 여 5명
- 학 령: 초대졸 이상(불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 연 령: 38세 이상

'건강'은 이제 인류 최대의 관심사이자 국가전략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함께 전개해나갈 뜻있는 몇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 가족처럼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실 분-꿈과 보람이 있고 생활이 보장되는 우리들의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전화 : (0343)49-9949, 41-5071